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설 명 자 료</h1>	
배 포 일	2019. 3. 14. / (총 2매)	담당부서	보험정책과
과 장	정 윤 순	전 화	044-202-2710
담 당 자	박 정 우		044-202-2705

“건강보험 보험료는 지난 10년간(’07~’16)의 인상 수준을 유지 중”

(3월 14일자 동아, 머투, 서경, 세계, 조선, 한경, 한국 등, ‘건강보험 8년만에 적자 전환’ 보도 관련)

-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정상추진 중이며, 정부지원 확대, 수입기반 확충,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향후에도 적립금이 고갈되는 일 없이, 당초 발표 수준보다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수준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기사 주요내용

- ‘문재인 케어’로 인한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년만에 적자 (1,778억 원) 전환 (예산정책처는 ’26년 적립금 고갈 전망, 고갈 시 보험료를 인상 불가피)

□ 설명 내용

-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’(’17.8월)을 정상 추진* 중입니다.

* (주요 추진성과) 중증치매,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, 난임(’17.10월), 상급병실(상급종합·종합병원 2·3인실), MRI(뇌·뇌혈관·특수)(’18.10월) 건보 적용

** ’18년 현재 국민(가입자) 납부 보험료(53.6조원) 대비 급여 혜택(60.6조원)은 1.13배 수준(’17년 1.11배)

- 또한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’19년 7.9조 원으로 예년에 비해 최대 규모로 증액(전년 대비 7000억 원)하였습니다.

○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'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, 일정 수준의 적립금(약 10조 원 이상)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.

- 정부지원 확대, 수입기반 확충,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, 당초 발표한 수준보다 국민의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

* 보장성 대책 발표('17.8월) 시, 보험료율 인상은 최근 10년 간('07~'16)의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(3.2%)에서 관리할 계획임

<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사항 및 예상 혜택 >

구분	항목	시행시기	예상 혜택
비급여의 급여화	선택진료비 폐지	'18.1월	5천억 원 해소
	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	'18.4월	6~16만 원 → 2~6만 원
	의학적 비급여 해소	'18.4월 ~ '18.12월	보육기(인큐베이터), 신경인지검사 등 198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
	상급병실(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) 2·3인실 건강보험 적용	'18.7월	상급종합병원(2등급) 1일 입원시, (2인실) 15만 원 → 8만 원, (3인실) 9만 원 → 5만 원
	뇌·뇌혈관MRI 건강보험 적용	'18.10월	38~66만 원 → 9~18만 원
	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(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)	'19.1월	약 10만 원 → 약 2만5000원
	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	'19.2월	6~16만 원 → 2~5만 원
대상자별 본인부담 경감	노인외래정액제 개선	'18.1월	1만5000원 초과 시 30% → 10~30% (예시: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6000원 → 2000원)
	노인틀니부담	'17.11월	50 → 30% (약 62만 원 → 약 37만 원)
	중증치매부담	'17.10월	20~60% → 10%
	15세 이하 입원진료비부담	'17.10월	10~20% → 5%
	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	'17.10월	30~60% → 10%
	여성 난임시술 급여화	'17.10월	건강보험 적용 (예)(산배)의 50만원 → 약 22만원(16년 평균) * 개인별 시술종류 등에 따라 상이
	노인임플란트 부담	'18.7월	약56~69만 원 → 34~41만 원
	장애인보장구 급여대상자확대	'18.7월	욕창예방방석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 확대
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완화	본인부담상한제 개선	'18.1월	소득하위 50% 연간 40~50만 원 경감
	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	'18.1월	최대 3천만 원 지원